

『석보상절』 권23·24의 언해문과 원문의 대응 양상 연구

A Correspondent Study between the Translation and the Original Text of
Seokbosangjeol vol. 23 and vol. 24

김 성 주 (Kim, Seong Ju)*

◁ 목 차 ▷

1. 緒言	4.1 언해문과 원문의 1대1 대응(Type Ⅰ)
2. 『釋譜詳節』의 底經에 대한 이해	4.2 언해문과 원문이 1대1 非對應(Type Ⅱ)
3. 『釋譜詳節』의 諺解文과 漢文 原文	5. 結論
4. 언해문과 한문 원문의 對應 類型	<참고문헌>

< 초 록 >

『釋譜詳節』은 내용을 기준으로 “釋尊의 傳記” 부분과 “佛經 翻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현존본 중에서 전자는 권3, 6, 11의 일부, 23, 24가 속하고, 후자는 권9(藥師經), 11의 일부(地藏經), 13, 19, 20, 21(이상 法華經)이 속한다. 『석보상절』의 諺解文과 原文은 “석존의 전기” 부분이든 “불경 번역” 부분이든 기본적으로 단어 대 단어의 관계가 1대1로 대응되는 관계이다. 즉 원문의 한 단어를 언해문의 한 단어와 정확하게 대응시킬 수 있다. “석존의 전기” 부분에 해당하는 『석보상절』 권23·24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을 비교해 보면, 크게 언해문과 원문이 1대1 대응이 되는 전형적인 경우와 원문과 언해문이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비전형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다시, 첫째 한문 원문의 구절들의 위치 변화가 없는 경우, 둘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저경의 일부분을 생략한 경우, 셋째 저경인 『釋迦譜』의 저경을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첫째 저경의 한문 원문을 단순히 의역한 경우, 둘째 문장 구성 성분의 위치 변화가 있는 경우, 셋째 저경에 없는 부분을 삽입한 경우, 넷째 우리의 情緒에 맞지 않는 표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要語: 『釋譜詳節』, 釋尊의 傳記, 佛經 翻譯, 1대 1 대응, 節略

< ABSTRACT >

Seokbosangjeol can be divided into “the Biography of the Buddha” and “the Translations of the Buddhist Scriptures” based on the context. Among the existing books, the vol. 3, vol. 6, parts of vol. 11, vol. 23 and vol. 24 belongs to the former Category, and the vol. 9 (Bhaiṣajya guru-Vaiḍūrya sūtra), parts of vol. 11 (Kṣitigarpha purva-praṇidhāna sūtra), vol. 13, vol. 19, vol. 20, and vol. 21 (Saddharma Puṇḍarīka Sūtra) belong to the latter category of *Seokbosangjeol*. The relation between the translation and the original text of *Seokbosangjeol* is basically a one-on-one correspondence between words, whether it is part of “the Biography of Buddha” or part of “the Translation of the Buddhist Scriptures.” In other words, a word in the original can be accurately matched with a word in the translation. In the first category of *Seokbosangjeol* consisting of ‘Buddha’s Biography’ from vol. 23 and vol. 24, there are two cases of differences that occur. The first being the typical word-to-word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Chinese character and the other being the atypical case, where there are missing characters. The former case shows three sub-types of differences. First, there was no change in the location of characters or placement of words. Second, elimination of words that are unnecessary to the context. And third, where extra words or adjectives were added that were not there in the original text. In the latter case, there occurs 4 sup-types of differences. The first is the translations made based on the meaning of the characters. The second is change in the placement of the words. Third is adding extra adjectives that were not in the original context. And fourth is eliminating the expressions that seem to be odd in the Korean context or culture.

Key words: *Seokbosangjeol*(釋譜詳節), the Biography of the Buddha, the Translations of the Buddhist Scriptures, one-on-one correspondence, word-to-word translation

*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sutra01@daum.net)

투고일: 2019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4일
서지학연구, 제79집, 111-132,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9.111>

1. 緒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는 『석보상절』 권23을 마지막으로 전10권의 현존하는 『석보상절』에 대한 역주서 간행을 마무리하였다. 『석보상절』은 기존 역주서가 있으나¹⁾ 이들은 모두 불교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닌 국어학자나 국문학자가 주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석보상절』의 기존 역주서는 불교 주석 부분이 비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보상절』의 기존 역주서들은 역주자의 불교 이해 정도에 따라 불교 주석의 수준이 고르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석보상절』 역주서는 국어학자와 불교학자가 공동으로 역주함으로써 기존 역주서의 불교 주석 문제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역주서들은 언해문에 대한 저경을 싣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석보상절』, 『月印釋譜』와 刊經都監 諺解本の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漢文 原文의 여부에 있다. 간경도감 언해본들은 한문 원문을 싣고 있는데 비해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는 한문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底經에 대해서는 일찌기 민영규(1957, 1957가, 1957나, 1963), 이동림(1959) 등에 의해서 제시되었으나, 『석보상절』 역주서에서 저경의 원문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김영배(2009)에 의해서이다.²⁾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간행한 『석보상절』에 대한 역주본은 현존하는 10권의 『석보상절』에 대한 모든 저경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불교학술원의 『석보상절』 역주서에 제시된 저경의 원문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원문이 밝혀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제시된 저경 중에서도 수정하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도 있다.³⁾ 새로 간행된 東國大 佛敎學術院의 『釋譜詳節』 譯註書들은 기본적으로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을 1대1의 대응 관계로 파악하고 저경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석보상절』의 저경을 밝히는 작업에서 진일보한 작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작업들은 『석보상절』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漢文本 『釋譜詳節』(『重修釋迦譜』)’을 밝혀 『석보상절』의 본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석보상절』의 “석존의 전기 부분”에 해당하는 권23·24를 중심으로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대응 양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하여 특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석보상절』은 훈민정음 창제 후에 간행된 최초의 한글 산문 문헌이다. 그 동안 『석보상절』은 “意譯이 많은 번역 문헌”으로서만 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한 김기종(2010)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석보상

1) 『석보상절』의 기존 역주서로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권6·9·11, 권13·19, 권20, 권21 등 4책과 천병식(1985)에서 영인과 함께 역주된 『석보상절』 권3, 김영배(1982/2009)에서 영인과 함께 역주된 권23, 권24 등 총 6권이 있다.
2) 저경의 구체적인 원문 제시는 『월인석보』 권19를 대상으로 한 남권희·남경란(2000), 『월인석보』 권20, 권25에 대한 강순애(2001나, 2005) 등에서 먼저 시도되었으며, 이후에도 『월인석보』 권25, 권4에 대해서 김영배(2009-2010, 2010), 『석보상절』 권20과 권21에 대해서 김무봉(2012)과 김영배·김성주(2012)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3) 이미 김미경(2018)에 의해서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역주서인 『석보상절』 권3에서 잘못 밝혔거나 미진하게 밝혀진 부분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저경과 원문을 논의하였다.

절』의 저경을 대체로 밝혔지만 지금까지 저경이 『석보상절』의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원문으로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석보상절』의 한문 저경이 실제 『석보상절』의 언해문에서 어떤 식으로 발췌되는지 그 유형을 본격적으로 살핀 논문이다. 즉 이 논문은 최초의 한글 산문 문헌인 『석보상절』이 한문 문헌의 어떤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지, 한문의 한글 번역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석보상절』의 번역에는 한문 저경을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등의 문제를 밝혀 한글 번역사의 최초 과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釋譜詳節』의 底經에 대한 이해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의 대응 양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석보상절』 권23·24의 저경에 대한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새로 간행된 『석보상절』 권24의 역주서인 김유범·김진영(2019)가 저경으로 『대지도론』⁴⁾을 거론한 사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가. 迦葉이 阿難이 머리 만지며 날오디 내 부러 너를 어서 得道하게 하다니 츠기 너기디 말라
하더라 <권24: 376~371>
나. (大)迦葉手摩阿難頭言 我故爲汝 使汝得道 汝無嫌恨 『大智度論』
다. (大)迦葉手摩阿難頭言 我故爲汝 使汝得道 汝無嫌恨 『法苑珠林』

(1가)의 저경으로 김유범·김진영(2019)는 『大智度論』을 제시하였으나, 동일한 문장이 (1다)와 같이 『法苑珠林』⁵⁾에도 나와 있다. 즉 동일한 원문이 『대지도론』과 『법원주림』에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佛典에서는 흔히 있는 현상이다. (1가)의 원문은 (1나)의 『대지도론』과 (1다)의 『법원주림』에 모두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들 중 『석보상절』의 저경으로 어떤 문헌이 쓰였을까 하는 점이다. 문헌 성립의 측면에서 보면 『대지도론』이 『법원주림』보다 먼저 성립되었다. 그러나 『석보상절』의 저경으로서 『법원주림』이 쓰인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대지도론』이 쓰인 곳은 항상 『법원주림』 등의 다른 문헌과 중복된다. 따라서 우리는 『석보상절』의 편찬자들은 『법원주림』을 참조하였지만 『대지도론』은 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1가)의 저경은 『대지도론』이 아니라 『법원주림』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지도론』은 2~3세기에 龍樹가 저술하였고, 鳩摩羅什(Kumārajīva)이 402-406년에 번역하였다. 원래는 『大品般若經』 600권에 대한 주석서이나, 실제로는 空觀 佛敎의 측면에서 여러 학설, 사상, 전설, 역사, 지리, 승가 등에 관한 백과사전의 성격을 지닌다.

5) 『법원주림』은 668년 唐의 律僧 道世가 10년 동안 지은 책으로 670년에 완성하였다. 전체 100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經과 論에 대해 말한 여러 가지 사항을 분류하여 기록한 일종의 불교 類書이다.

이번에는 『석보상절』의 저경으로 『석가보』를 제시한 경우와, 원래 『석가보』의 저경으로 제시한 문헌을 다시 저경으로 제시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⁶⁾

- (2) 가. 아래 부테 阿難이 더브르시고 舍衛城의 드르샤 乞食 하더시니 깊 7새 효근 아히들히 홀글
 뫼화 지블 밍 7라 두고 이논 몸채라 이논 翼廊이라 이논 庫房이라 ㅎ고 쏘 이논 천라이라
 이논 穀食이라 ㅎ야 애워려 노다가 ㅎ 올미 闍耶 | 라 호리 부터 오시거늘 보습고 과ㅎ스박
 제 庫房에 ㅼ리라 ㅎ야 뒷던 홀글 우희여 부터씩 받즈보려 ㅎ니 ㅋ 자글씨 제 번 올미 毗闍耶 |
 라 호리들드려 날오디 내 네 우희 올라 부터씩 布施 하스박지라 ㅎ야늘 毗闍耶 | 깃거 부터
 알피 굽거늘 闍耶 | 毗闍耶이 엇게에 올라 부터씩 받즈본대 부테 구브샤 바리로 바다시닐
 毗闍耶 | ㅅ掌 하야 조차 깃스박하더라 <권24: 778~811>
- 나. 爾時佛與阿難 入舍衛城乞食 見群小兒於道中戲 各聚地土 用作舍宅倉庫財寶五穀 有一小
 兒遙見佛來 敬心內發歡喜踊躍 卽取倉中土爲穀者 便以手探欲用施佛 身小不及語一小
 兒 我登汝上以穀布施 小兒歡喜報言可爾 卽躡肩上以土奉佛 佛下鉢低頭受土 <『釋迦譜』
 (5권본) 권5>
- 다. 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爾時世尊 晨與阿難 入城乞食 見群小兒於道中戲 各聚地土
 用作宮舍 及作倉藏財寶五穀 有一小兒 遙見佛來 見佛光相 敬心內發 歡喜踊躍 生布施心
 卽取倉中名爲穀者 卽以手掬 欲用施佛 身小不逮 語一小兒 我登汝上 以穀布施 小兒歡喜
 報言：可爾 卽躡肩上 以土奉佛 <『賢愚經』>

(2가)의 『석보상절』 번역문에 대해서 김유범·김진영(2019)는 저경으로 (2나)와 (2다)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2나)는 『석가보』의 해당 내용이며, (2다)는 『석가보』의 저경인 『賢愚經』의 해당 내용이다. 따라서 (2나)와 (2다)는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석보상절』의 저경으로 『현우경』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석보상절』의 편찬자들은 『석가보』 자체를 저경으로 이용했지 『석가보』의 원래 저경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보상절』의 편찬자들은 ‘석존의 전기’를 편집하면서 기본적으로 『석가보』를 바탕으로 하였고, 『석가보』의 저경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2)와 같이 『석가보』와 『석가보』의 저경이 『석보상절』의 저경으로 둘 다 가능한 경우에는 『석가보』를 저경으로 제시하는 것이 옳다.⁷⁾ 『석보상절』의 저경이 『석가보』는 물론 『석가보』의 저경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해당 부분이 『석가보』

6) 『석보상절』의 저경으로 쓰인 문헌들의 종류와 내용은 再雕大藏經, 新修大藏經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실제로 『석보상절』의 편찬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물 문헌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석보상절』의 底經 중 가장 기본적인 저경이라 할 수 있는 『釋迦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다. 『석가보』는 고려의 재조대장경에 入藏되어 있는 5권본과 宋·元·明 대장경에 入藏되어 있는 10권본이 있다. 『석보상절』의 저경인 『석가보』에 대해서는 5권본과 10권본의 구분이 없이 『석가보』가 『석보상절』의 저경이었다고 본 견해와 10권본인 廣本이 쓰였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김기중(2010), 김미경(2018) 등의 연구에 의하면 『석보상절』의 저경으로 쓰인 『석가보』는 5권본과 10권본 둘 다이다. (2가)의 『석보상절』 언해문에 대한 원문으로 제시된 (2나)는 10권본 『석가보』에는 없고, 5권본 『석가보』에만 실려 있다.

7) 김유범·김진영(2019)도 언해문의 원문은 『釋迦譜』로 인식하고, 『賢愚經』은 참조하라는 뜻에서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석보상절』 언해문의 저경으로 『현우경』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혼동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김유범·김진영(2019: 104-105)에서 『석보상절』 권23의 778~811 “아래 부테 阿難이 더브르시고 … 毗闍耶 | ㅅ掌 하야 조차 깃스박하더라”에 제시된 저본 중 『雜阿含經』 제23권과 『賢愚經』 제3권은 저본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에 없을 경우로만 한정된다.⁸⁾⁹⁾

다음은 『석보상절』의 저경으로 제시된 『釋迦譜』와 『釋迦氏譜』의 문제이다.¹⁰⁾

- (3) 가. 人間에 큰 塔이 네히니 迦毗羅國 처삼 나신 짜해 ㅎ 塔 잇고 摩竭提國 成道 ㅎ신 짜해 ㅎ 塔 잇고 波羅捺國 鹿野苑 轉法 ㅎ신 짜해 ㅎ 塔 잇고 拘尸國 涅槃 ㅎ신 짜해 ㅎ 塔 잇더라 <권23: 58ㄴ7~59ㄱ5>
- 나. 祐案經律 人中有四大塔 生處塔 在迦維羅衛國(處三千日月 萬二千天地之中) 成道塔 在摩竭提國(善勝道場元吉樹下) 轉法輪塔 在波羅捺國(古仙人住處)鹿野苑中 涅槃塔 在拘夷那竭國(力士生地 秀林雙樹間) 『釋迦譜』 卷3
- 다. 案經律 人中有四大塔 生處塔在迦維羅衛國(林微園中) 成道塔在摩竭提國(善勝道場元吉樹下) 轉法輪塔(在波羅捺國仙人住)處鹿野苑中 涅槃塔在拘夷那竭國(力士生地秀林雙樹間) 『釋迦氏譜』 卷1

『석보상절』의 언해문인 (3가)의 저경은 (3나)의 『석가보』와 (3다)의 『석가씨보』가 모두 가능하리 만큼 『석가보』와 『석가씨보』의 내용은 유사하다. 『석가씨보』 자체가 『석가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석가보』와 『석가씨보』 중 어느 것을 『석보상절』의 저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둘 다 『석보상절』의 저경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석보상절』의 저경으로서의 두 문헌의 공헌도를 생각하면 『석가씨보』보다는 『석가보』를 저경으로 보는 것이 옳다. 『석가씨보』에 비해서 『석가보』가 『석보상절』의 저경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3. 『釋譜詳節』의 諺解文과 漢文 原文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의 대응 유형을 살피기 전에 언해문과 원문의 일반적 대응 양상과 저경의 한문 원문의 기술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다. 먼저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원문의 일반적 대응 양상이다.

- (4) 가. 그 저기 迦葉이 彌盧山 우희 사름 브려 통부플 티라 ㅎ니 그 불소리에서 마를 날오디 부텃 無學 弟子 一千이 摩竭提國 上茆城 畢鉢羅堀로 모다 오라 ㅎ더라 阿闍世王을 請 ㅎ야 檀越 外護 | ㄷ외에 ㅎ야 부텃 遺教를 結集 ㅎ더니 <권24: 1ㄴ1~2ㄱ4>¹¹⁾

8) 『석보상절』에는 『석가보』의 저경이 번역된 경우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문 (12)를 참조할 것.
 9) 석존에게 모래를 보시하였던 두 아이의 이름으로 ‘闍耶’와 ‘毘闍耶’가 나오는데, 이 이름은 『석가보』의 해당 부분에 나오지 않고 다른 부분에 나온다. 그런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김유범·김진영(2019)은 두 동자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석가보』와 『석가씨보』의 저경인 『잡아함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경으로는 『석가보』만 제시하는 것이 옳다. 또한 김유범·김진영(2019)에서도 『석보상절』 권24의 ‘30ㄱ3~31ㄴ2’의 언해문 “ㅎ 臣下 | 阿育王의 날오디 ~ 내 앓습디 아니호이다”에 대해서 『釋迦譜』 제5권, 『法苑珠林』 제40권 등을 저경으로 제시한 것도 옳지 않다. 『釋迦譜』 제4권 『釋迦龍宮佛髻塔記』만 저경으로 제시하는 것이 옳다.
 10) 이 장면은 이병기·이기운(2019: 435-436)에서는 “저본 없음” 즉 저경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

나. 於是迦葉遣使往彌盧山頂 擊銅撻椎 聲中有言 遍召聖弟子無學千人至摩竭提國 上茆城 畢鉢羅窟 請阿闍世王爲檀越外護 結集遺教 <『註釋迦如來成道記』 제2권(卍續藏 X75, No. 1509, p.15a)>¹²⁾

(4가)는 『석보상절』 권24의 1장 뒷면에서 2장 앞면 4행까지의 내용으로 제1차 佛典結集을 위해서 가섭이 필발라굴로 비구들을 모으는 장면이다. (4나)는 김유범·김진영(2019: 57-58)에서 (4가)의 저경으로 제시된 부분이다. 『석보상절』은 한문 원문이 없고 언해문만 실려 있는 문헌이며, 또한 刊經都監 諺解本들에 비해서 意譯된 부분이 많은 문헌이다. 이런 이유로 先學들은 『석보상절』을 翻案 散文 資料로 규정해 왔던 것이다.¹³⁾ 그러나 『석보상절』의 언해문에 해당하는 한문 원문을 찾아서 언해문과 원문을 대조해 보면 『석보상절』이 기본적으로 한문 원문을 충실히 번역한 문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4가)와 (4나)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자. 먼저 (4가)와 (4나)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석보상절』의 언해문이 저경의 한문 원문과 구절별로 1대1 대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석보상절』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의 구절 대응 양상

『석보상절』 언해문	저경의 한문 원문
① 그 저긔 迦葉이 彌盧山 우희 사름 브려	Ⓐ 於是迦葉遣使往彌盧山頂
② 통부플 티라 흐니	Ⓑ 擊銅撻椎
③ 그 붓소리에서 마를 닐오디	Ⓒ 聲中有言
④ 부덧 無學 弟子 一千이 摩竭提國	Ⓓ 遍召聖弟子無學千人至摩竭提國
⑤ 上茆城 畢鉢羅窟로 모다 오라 흐더라	Ⓔ 上茆城畢鉢羅窟
⑥ 阿闍世王을 請흐야 檀越 外護 1 드외에 흐야	Ⓕ 請阿闍世王爲檀越外護
⑦ 부덧 遺教를 結集흐더니	Ⓖ 結集遺教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의 각 구절은 정확하게 1대1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언해문의 단어와 원문의 단어가 1대1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5가)와 (5나)의 첫 구절을 예로 들어 보인다.

- (5) 가. 그 저긔: 於是
 나. 迦葉이: 迦葉
 다. 彌盧山 우희: 彌盧山頂
 라. 사름 브려: 遣使往¹⁴⁾

11) <권24: 1나1~2나4>는 제시된 예문이 『석보상절』 권24의 1장 뒷면 1행부터 2장 앞면 4행에 해당한다는 표시이다.
 12) <『註釋迦如來成道記』 제2권(卍續藏 X75, No. 1509, p.15a)>는 김유범·김진영(2019)에 제시된 원문 표시 방법인데, 이 원문이 『註釋迦如來成道記』 제2권에 속하며 이 문헌은 卍續藏經에 입장되어 있고, CBETA로는 'X75, No. 1509, p.15a'에 해당한다는 표시이다.
 13) 대표적으로 고영근(1994)을 참조.

아니 오라아 뿌리라 허거늘 梵王과 帝釋과 天王들히 다 와 大迦葉의 請호디 如來 正法眼으로 尊者의 付屬호시니 어서 結集호쇼셔 <권24:1 72~1 1>

나. 佛既涅槃 諸外道喜曰 瞿曇在日 教法猶火 今既滅度 不久撲滅 時梵王帝釋與諸天王皆來 請迦葉曰 如來以正法眼付囑尊者 宜早結集 <『註釋迦如來成道記』 제2권(卍續藏 X75, No. 1509, p.15a)>

다. 佛既涅槃 諸外道喜曰 瞿曇在日 教法猶火 ① 今(既滅度) 不久撲滅 時梵王帝釋與諸天王皆來 請迦葉曰 如來以正法眼付囑尊者 宜早結集 <『註釋迦如來成道記』 제2권(卍續藏 X75, No. 1509, p.15a)>

(7가)는 『석보상절』 권24의 첫 부분으로서 (7나)는 김유범·김진영(2019)가 (7가)의 원문으로 제시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필자는 (7다)와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다①)은 ‘今既滅度’의 ‘既滅度’를 생략된 것으로 처리하고, ‘今’만 남겨 놓았는데, 실제 『석보상절』의 해당 구절을 보면 ‘이제사’로만 언해되어 있으므로 ‘既滅度’는 당연히 생략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4. 언해문과 한문 원문의 對應 類型

지금까지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의 기본적인 대응 양상과 저경의 한문 원문 표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의 대응 양상을 유형별로 알아본다.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대응 양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석보상절』은 부처님의 전기를 기술하면서 중간 중간 중요한 경전에서 발췌 번역하여 실고 있다. 즉 『석보상절』의 내용 중에는 석가의 일대기를 여러 가지 불전에서 뽑아서 번역한 부분과 단일한 경전을 번역한 부분이 있다. 전자를 ‘석존의 전기 부분(Part I)’, 후자를 ‘불경 번역 부분(Part II)’으로 부르고자 한다. 현전하는 권3, 6, 9, 11, 13, 19, 20, 21, 23, 24 등 10권의 『석보상절』 중에서 ‘석존의 전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권3, 권6, 권11의 일부, 권23, 권24 등이고 ‘불경 번역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권9(약사경), 권11의 일부(지장경), 권13, 19, 20, 21(이상 법화경) 등이다.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면, ‘석존의 전기 부분’은 『석가보』를 중심으로 여러 불전에서 발췌 인용하여 번역하고 있는데 반해,¹⁵⁾ ‘불경 번역 부분’은 한문으로 된 경전을 상대적으로 원문의 가감 없이 축자적으로 번역하고 있다.¹⁶⁾ 이 중 이 글의 대상이 되는

15) 그러나 법화경을 번역한 『석보상절』 권13, 19, 20, 21은 계환의 『법화경요해』 중 주석 부분을 언해한 부분도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석보상절』 권13, 19, 20, 21의 저경은 『법화경』이 아니라 계환의 『法華經要解』라고 할 수 있다.

16) ‘불경 번역 부분’은 다시 『법화경』, 『약사경』과 같이 하나의 경전을 모두 번역하는 경우와 『지장경』과 같이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석보상절』 권23·24는 『석가보』를 중심으로 『大涅槃經後分』, 『註釋迦如來成道記』 등 여러 불전에서 발췌해서 번역한 ‘석존의 전기 부분’에 해당하는데, 권23과 권24는 부처님의 열반으로부터 부처님 열반 이후의 茶毗, 法藏 結集, 그리고 아쇼카왕 이야기 등 佛法 弘布의 내용을 담고 있다.¹⁷⁾

이 절에서는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대응 양상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의 대응 양상을 크게 나누면 1대1 대응 부분(Type I)과 1대1 비대응 부분(Type II)로 나눌 수 있다.

4.1 언해문과 원문의 1대1 대응(Type I)

『석보상절』의 언해문이 저경의 한문 원문과 1대1로 대응되는 경우는 다시 유형별로 세분하면 첫째 문장 성분의 위치 변화가 없는 경우, 둘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저경의 일부분을 생략한 경우, 셋째 저경인 『석가보』의 저경을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

4.1.1 원문 문장 성분의 위치 변화가 없는 경우¹⁸⁾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이 1대1로 대응하는 경우이다. 이때 언해문과 한문 원문은 우리말과 한문의 특성 즉 동사의 위치에 따른 변화 이외에는 구성 요소의 순서도 변함이 없다.

- (8) 가. ① 또 大衆드려 니르샤디 ② 내 佛眼으로 ③ 三界엿 一切 諸法을 다 보니 ④ 無明入 根源이 性이 本來 解脫하야 ⑤ 十方에 求하야도 곧 묻 어드리로다 ⑥ 根源이 업순 전초로 가지와 님과 다 解脫하며 ⑦ 無明이 解脫혼 전초로 ⑧ 老死 니르리 다 解脫하니라 <권23: 16ㄴ-8~17ㄱ8>
- 나. ㉠ 復告大衆 ㉡ 我以佛眼 ㉢ 遍觀三界一切諸法 ㉣ 無明本際性本解脫 ㉤ 於十方求了不能得 ㉥ 根本無故 所因枝葉皆悉解脫 ㉦ 無明解脫故 ㉧ 乃至老死皆得解脫

(8가)의 언해문에 대응하는 한문 원문은 (8나)인데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인 『석가보』의 한문 원문은 1대1의 대응 관계에 있다.¹⁹⁾ 이를 <표 2>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7) 『석보상절』 권23·24의 저경의 언해문에 대응되는 자세한 저경의 한문 원문은 김기중(2010), 이병기·이기운(2019), 김유범·김진영(2019)을 참조.

18) 이 부분은 앞에서 제시한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의 기본적인 대응 양상을 기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언해문과 원문의 대응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다시 기술하였다.

19) 편의상 원문 검색 프로그램인 CBETA(Chinese Buddhist Electronic Text Association; 中華電子佛典協會)의 끌어읽기를 그대로 가져왔다.

<표 2>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원문 한문의 구절 대응 관계 02

저경의 원문	『석보상절』의 언해문
㉠ 復告大衆	① 또 大衆드려 니르샤디
㉡ 我以佛眼	② 내 佛眼으로
㉢ 遍觀三界一切諸法	③ 三界엿 一切 諸法을 다 보니
㉣ 無明本際性本解脫	④ 無明入 根源이 性이 本來 解脫호야
㉤ 於十方求了不能得	⑤ 十方에 求호야도 곧 못 어드리로다
㉥ 根本無故 所因枝葉皆悉解脫	⑥ 根源이 업순 전츠로 가지와 님패 다 解脫호며
㉦ 無明解脫故	⑦ 無明이 解脫호은 전츠로
㉧ 乃至老死皆得解脫	⑧ 老死 니르리 다 解脫호니라

<표 2>와 같이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은 1대1로 대응한다. 또한 단어 간의 대응도 1대1로 대응한다. 이를 앞의 세 구절까지만 <표 3>으로 보인다.

<표 3> 『석보상절』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의 단어의 대응 관계

㉠와 ①		㉡와 ②		㉢와 ③	
復	또	我	내	三界	三界엿
大衆	大衆드려	以佛眼	佛眼으로	一切	一切
告	니르샤디			諸法	諸法을
				遍	다
				觀	보니

<표 2>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은 의미 단위로 끊어 읽을 때의 원문의 단어와 언해문의 단어가 서로 1대1로 대응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4.1.2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저경의 일부분을 생략한 경우

『석보상절』의 언해문은 저경을 축자역하는 것이 기본적인 번역 방식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경에서 번거롭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번역한다.²⁰⁾

(9) 가. 世尊이 涅槃호거시닐 外道들히 깃거 님오디 瞿曇이 이십 저긴 教法이 블 곧호더니
이제사 아니 오라아 뿌리라 호거늘 <권24: 172~175>

나. 佛旣涅槃 諸外道喜曰 瞿曇在日 教法猶火 今(旣滅度) 不久撲滅 『註釋迦如來成道記』

(10) 가. 王이 울며 禮數호고 나니 그 뉘히 도로 어우니라 <권24 771~172>

나. 王瞻禮悲泣 (讚頌)訖 山乃復合 『註釋迦如來成道記』

20) 『석보상절』에는 저경에서 번거로운 부분을 제거하고 언해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 상 간단한 예들만 제시한다.

- (11) 가. 阿育王이 阿毘樓陀 | 라 훤 사르달 大臣 사르니 <권24 1374~1376>
 나. 阿育王(如禮法殯葬父王已 卽立)阿毘樓陀爲大臣²¹⁾ 『註釋迦如來成道記』

(9가)의 ‘이제사’는 전후의 문맥을 보면 저경의 ‘今既滅度’에서 ‘既滅度’를 생략하고 ‘今’만을 언해한 것이다. (10나)의 ‘讚頌’도 (10가)에서 번역되지 않았다. (10가)에서는 ‘讚頌’을 기준으로 선행하는 ‘王瞻禮悲泣(讚頌)訖’은 ‘王이 울며 禮數 하고 나니’로 번역되었다. 원문의 ‘讚頌’을 삭제하고 번역했지만 전체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1나)의 ‘如禮法殯葬父王已 卽立’도 (11가)에서는 삭제되어 번역되지 않았다. 삭제된 부분의 앞 부분인 ‘阿育王’은 ‘阿育王이’로 번역되고, 뒷부분인 ‘阿毘樓陀爲大臣’은 ‘阿毘樓陀 | 라 훤 사르달 大臣 사르니’로 번역하여, 전체 구절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보상절』의 저경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석보상절』의 언해문에 해당하는 저경의 한문 원문을 삭제된 부분 없이 단순히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은 1대1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로 비교하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나~11나)와 같이 저경의 한문 원문 중에서 발췌된 부분과 삭제된 부분을 구분하여 삭제된 구분은 괄호 속에 표시하는 것이 『석보상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바람직하며, ‘重修釋迦譜’ 또는 ‘漢文本 釋譜詳節’ 등으로 불리는 『석보상절』의 原稿本의 본래 모습을 밝힌다는 측면에서도 저경에서 인용된 부분과 삭제된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3 저경인 『석가보』의 저경을 보충하는 경우

『석보상절』의 ‘석존의 전기 부분’은 주로 『석가보』를 중심으로 석존의 일대기를 기술하고 있는데, 『석가보』는 梁의 僧祐가 여러 불전에서 석가의 일대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엮은 책이다. 그런데 『석보상절』은 『석가보』를 인용하면서 『석가보』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석가보』의 저경을 인용하기도 하였다.²²⁾

- (12) 가. ① 그 뻘 世尊이 神力으로 棺入 듬게를 열티게 訶시고 合掌訶야 니러 안즈시니 터럭 구무마다 一千 光明을 펴시고 光明마다 一千 化佛이 現訶샤 다 合掌訶야 摩耶씨로 向訶야 슬복사디 闍浮提에 머리셔 오실씨 法이 本來 이런 거시니 우디 마르쇼셔 訶시고 <권23 287~297>
 나. ② 偈를 슬복사디 一切 福田사 中에 부텃 福田이 甞 爲頭訶며 一切 겨집 中에 玉女寶 | 甞 爲頭訶니 날 나訶신 어머니미 느러 굴복리 업스샤 能히 三世엿 佛法僧寶를 내실씨 내

21) (12가)의 ‘阿育王(如禮法殯葬父王已 卽立)阿毘樓陀爲大臣’에서 생략되는 ‘如禮法殯葬父王已 卽立’을 삭제하면 ‘阿育王阿毘樓陀爲大臣’이 되어 정상적인 한문이 되지 않으며 ‘以’가 들어간 ‘阿育王以阿毘樓陀爲大臣’이 되어야 하나 이런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22) 『석보상절』의 ‘석가의 전기 부분’의 다른 권차인 권3에서도 『석가보』에 없는 부분을 다시 『석가보』의 저경인 『보요경(普曜經)』에서 인용한 경우가 있다(김성주 2014: 238).

- 棺으로서 나리 合掌하야 깃거 讚嘆호수박 나하산 恩惠를 갑스박 내이 孝道호수복며 사랑호
 습논 뜨들 나토노니 諸佛이 비록 減度하야도 法僧寶ㅣ 상네 잇느니 願하든 어머니미 시름
 마르시고 無上行을 슬퍼보쇼셔 하시니라 <권23 29ㄱ7~30ㄱ5>
- 다. 爾時世尊以大神力故 令諸棺蓋皆自開發 便從棺中合掌而起 - 如師子王初出窟時奮迅之
 勢 - 身毛孔中放千光明 一一光明有千化佛 悉皆合掌向摩訶摩耶 以梵軟音問訊母言 遠
 屈來下此閻浮提 諸行法爾 願勿啼泣 『釋迦譜』
- 라. (即便爲母) 而說偈言 一切福田中 佛福田爲最; 一切諸女中 玉女寶爲最 今我所生母 超勝
 無倫比 能生於三世 佛法僧之寶 故我從棺起 合掌歡喜歎 用報所生恩 示我孝戀情 諸佛雖
 減度 法僧寶常住 願母莫憂愁 諦觀無上行 『摩訶摩耶經』 卷2

(12가)와 (12나)는 석존이 열반할 때 석존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이 도리천으로부터 내려와서 아들
 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으로 『석보상절』은 이 부분을 (12다)와 같이 『석가보』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석보상절』의 편찬자들은 이것만으로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지 마야부인의 偈頌
 도 싣고 있는데, 이 계송은 『석가보』에는 실려 있지 않고, 『석가보』의 저경인 『摩訶摩耶經』에 실려
 있다. 이로써 『석보상절』이 『석가보』를 중심으로 석존의 전기를 편찬한 책이기는 하지만 『석가보』
 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석가보』의 저경에서도 내용을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석보상절』의 언해문이 저경인 『석가보』의 저경에서 인용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언해문과 한문
 원문은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

『석보상절』은 저경인 『석가보』에 없던 부분을 『註釋迦如來成道記』, 『法苑珠林』 등에서 보충한
 경우도 있다.²³⁾ 이것은 저경인 『석가보』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때 이들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 (13) 가. 그 저귀 또 帝釋이 여들 王의 날오디 우리 諸天들토 舍利를 더러 주쇼셔 아니 주시면 싸호미
 나리이다 호고 또 阿耨達龍王과 文隣龍王과 伊那鉢龍王이 여들 王의 날오디 우리들토 舍利
 를 더러 주쇼셔 아니오 주시면 히므로 어루 호리이다 호더니 그저귀 優婆吉이 또 날오디
 드토면 모로매 계우리 잇느니 그러면 如來스 舍利 므스기 利益드외시리잇고 호고 즉자히
 세 기제 눈호아 호 기즈란 諸天의 호고 호 기즈란 龍王의 호고 호 기즈란 여들 王의 골오
 논흔대 모다 깃거 各各 金壘에 담스복니라 阿闍世王이 舍利를 모도아 혜스복니 各各 八萬
 四千이러시디²⁴⁾ <권23 55ㄱ1~56ㄱ6>

- 나. ㉠ 爾時釋提桓因 (即現爲人) 語諸王言 (《摩訶摩耶經》) + ㉡ 我等諸天亦當有分 若共諍力
 則有勝負 (幸可見與勿足爲難) 爾時阿耨達龍王 文隣龍王 伊那鉢龍王 語八王言 我等亦應
 有舍利分 若不見與力足相伏 (《釋迦譜》 卷4) + ㉢ 時優波吉言 諸王若爭 須有勝負 如來舍
 利不成利益 我當分爲三分 一分奉諸天 一分與龍神 一分分八國 由是衆心悅隨 各將金壘
 盛貯 (《釋迦如來成道記註》 卷2) + ㉣ 闍王共數各得八萬四千舍利 (《法苑珠林》 卷4)

23) 아래의 언해문도 『석가보』 이외의 원문이 보충된 부분이다.

i 가. 迦葉이 阿難이 머리 므니며 날오디 내 부러 너를 여서 得道호게 하다니 츠기 너기디 말라 호더라
 <권23: 3ㄱ6~4ㄱ7>

나. (大) 迦葉手摩阿難頭言 我故爲汝 使汝得道 汝無嫌恨 『法苑珠林』 권21.

24) 『석보상절』의 언해문에서 내용 전개에 관계가 없는 협주는 삭제하였다.

『석보상절』은 석존 열반 후 사리의 분배는 시종일관 阿闍世王을 포함한 여덟 나라의 왕은 물론 諸天과 龍王에게도 1/3씩 사리를 골고루 나누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데, 실제 석존의 사리 분배에 대해서는 여러 불전이 각각 다양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석보상절』의 편찬자는 어떤 식으로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3가)의 기사에서 여덟 나라의 왕들뿐만 아니라 제천과 용왕이 사리 분배를 주장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나중에 아소카왕이 8만4천탑을 건립하는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석가보』의 내용에 여덟 나라의 왕과 함께 제천과 용왕이 석존의 사리를 1/3씩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주석가여래성도기』나 석존의 사리를 나누어 여덟 나라의 왕, 제천, 용왕이 탑을 세운 후 아사세왕이 세운 탑을 세어 보니 8만4천탑이었다는 내용의 『법원주림』을 저경에 추가하고 있다.

4.2 언해문과 원문이 1대1 非對應(Type II)

『석보상절』의 언해문이 저경의 한문 원문과 1대1로 대응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첫째 저경의 한문 원문을 단순히 의역한 경우, 둘째 우리말 어순에 맞추기 위하여 저경의 어순을 바꾼 경우, 셋째 저경에 없는 부분을 삽입한 경우, 넷째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표현을 생략하는 경우 등이 있다.

4.2.1 저경의 한문 원문을 단순히 의역한 경우

『석보상절』의 언해문은 대부분 저경의 한문 원문을 직역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역한 경우도 있다.

- (14) 가. 比丘ㅣ 보고 녀교디 풀름도 풀름뵈써 내 몸도 더러히리로다 <권24 15ㄴ2-3>
나. 時比丘見是事 極厭惡此身 嗚呼苦哉 我身不久亦當如是 『釋迦譜』(5권본) 권5
- (15) 가. 迦葉이 여섯 가지 罪로 붓여 내터늘 <권24 2ㄱ8~2ㄴ1>
나. 大迦葉言 汝有此六種突吉羅罪 『法苑珠林』²⁵⁾
- (16) 가. 阿育王이 모디러 臣下를 손소 주기더니 <권23 13ㄱ7~13ㄱ8>
나. 王行暴惡故曰暴惡阿育王 『釋迦譜』(5권본) 권5
- (17) 가. 이런 한 탑을 世尊 위흐스바 이르스 불리잇고 <권24 9ㄴ7~10ㄱ1>
나. 而乃有此多塔之報 『釋迦譜』(5권본) 권5
다. 世尊이 아래 모습 功德을 히시관디 이런 한 탑을 世尊 위흐스바 이르스 불리잇고 如來 니르샤 디 디나건 劫에 히 王이 일후미 波塞奇라 호리 闍浮提入 八萬四千 나라할 가져 잇더니 <권24 9ㄴ6~10ㄱ4>
라. 如來先昔造何功德 而乃有此多塔之報 佛言 過去有國王 名波塞奇 典闍浮提 八萬四千國 『釋迦譜』(5권본) 권5
- (18) 가. 沙門은 늬미 지순 녀르물 먹느니이다 <권24 22ㄱ4~22ㄱ5>
나. 諸沙門悉不耕而食 『釋迦譜』(5권본) 권5

25) 이병기·이기운(2019: 62-64)에는 저경이 “被迦葉捐出衆。<『註釋迦如來成道記』 제2권(出續藏 X75, p.15a)>”로 되어 있다.

(14가)는 (14나)가 한문식 표현이기 때문에 의역한 부분에 해당한다. (14나)를 직역하면 ‘오호라! 괴롭구나.’가 되는데 『석보상절』의 언해문인 (14가)에서는 ‘뽕뽕도 뽕뽕뽕’과 같은 우리말식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15가)는 『석보상절』 번역의 기본인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15나)를 직역하면 ‘대가섭이 말하기를, 너는 이 여섯 가지 돌길라죄를 지냈다’가 될 터인데, 『석보상절』은 (15가)처럼 ‘가섭이 여섯 가지 죄로 붓게 하여²⁶⁾ 내치거늘’로 의역하였다. (15나)의 밑줄 친 부분인 ‘曰暴惡阿育王’도 의역되어 있다. (16)을 보면 (16가)의 앞부분인 ‘阿育王이 모디러’는 ‘王行暴惡故’를 축자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6가)의 뒷부분인 ‘臣下를 손소 주기더니’는 밑줄 친 부분인 ‘曰暴惡阿育王’을 의역한 것이다. 이를 직역하면 ‘폭악한 아육왕이라 불렀다’가 된다. (16가)는 저경인 (16나)의 ‘而乃有此多塔之報’를 의역한 것이다. (17가)와 (17나)만을 놓고 보면 의역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저경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17다)와 (17라)를 비교하고 (17다)의 밑줄 친 부분을 제외시키면 (17라)와 (17다)는 원문과 언해문이 1대1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17가)는 (17나)의 ‘而乃有此多塔之報’가 의역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8가)의 밑줄 친 부분인 ‘농사 지운 녀르를 먹느니이다’도 (18나)의 ‘不耕而食’를 의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나)를 직역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 먹기만 한다’이다.

4.2.2 원문 구성 성분의 위치 변화가 있는 경우

『석보상절』의 언해문은 저경의 한문 원문의 구절 위치를 바꾸어 구성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원문의 구성 성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언해문을 우리말에 보다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19) 가. ①無學 功夫에 못 미쳐 잇더니 ②이 結集處 저지 <권24 277~278>
 나. ㉠初結集場中 ㉡唯取無學聖人 ㉢時阿難尙居學地 『註釋迦如來成道記』
- (20) 가. ① 그저지 諸天은 하늘해 뒀셔다가 七寶塔 세습고 龍王은 龍宮의 뒀셔다가 七寶塔 세습고 여들 王은 各各 나라해 뒀셔다가 七寶塔 세스부니 ②優婆吉은 舍利 되습던 독 안해 그마니 뿌를 부르니 그에 브른근 舍利를 뒀셔다가 독 조쳐 七寶塔 세스부니라 <권23 5676~5676>
 나. ㉠分瓮受碩餘 此臣密以蜜塗瓮裏 以瓮量分舍利 ㉡諸天(得舍利) 還於天上即起七寶塔 龍(得舍利)還於龍宮 亦起七寶塔 八王(得舍利)各還本國 亦起七寶塔 ㉢臣優波吉著瓮 舍利并瓮亦起七寶塔

(19가)의 『석보상절』 언해문은 원문인 (19나)와 비교해 보면 원문의 구성 성분의 위치를 바꾸어

26) 여기서 언해문의 ‘뽕·여’를 권24의 역주서들에 기대어 ‘붓게 하여’로 번역하였다. 이 단어에 대해서 김영배(2009: 142, 310)도 ‘뽕대[注]’의 사동사로, 김유범·김진영(2019: 63)은 ‘붓다’의 사동사로 보았다. 전자의 설명에는 “참고한 용례는 피동사로 쓰인 것이므로, 사동과 피동에 두루 쓰였음을 알 수 있다.”로 설명되어 있는데 ‘피동사’는 ‘사동사의 잘못이다. 여기에는 ‘뽕-’이 피동으로 쓰인 “트리 어느 方을 브터 이에 흘러 뽕·이노(水從何方 流注於此)<능엄경언해 3:80>”의 예문도 제시되어 있다.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문인 (19나)를 번역하면 “①처음 결집하는 곳에는 ②무학을 이룬 성인만이 있었는데 ③이때 (아난은) 아직 무학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가 되는데, 이를 언해한 『석보상절』의 언해문은 (19가)와 같이 “①(아난이) 無學 功夫에 못 미쳐 있더니 ②이 結集處 저기”와 같이 원문의 ㉞가 ‘②이 結集處 저기’와 같이 뒤에 번역되어 있고, (19나)의 ㉞와 ㉟를 합친 부분이 『석보상절』에서는 ‘①(아난이) 無學 功夫에 못 미쳐 있더니’로 앞부분에 번역되어 있다.

(20가)에서도 『석보상절』에서 신하인 優波吉이 석존의 사리를 독으로 만든 되로 되어 천상의 諸天과 바다의 龍王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이때 남몰래 독 안에 꿀을 발라 석존의 사리를 자신도 가져 독과 함께 칠보탑을 세웠다는 기사이다. 그런데 이 부분의 원문인 (20나)를 보면 優波吉이 남몰래 독 안에 꿀을 발라 사리를 되는 내용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諸天和 용왕이 사리를 가져다가 칠보탑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며, 그런 다음 優波吉은 독에 묻은 석존의 사리와 사리를 되던 독과 함께 칠보탑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저경은 ㉞→㉟→㊱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석보상절』의 언해문의 순서 ①→②는 원문으로 말하면 ㉞→(㉞+㉟)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석보상절』은 저경의 어순을 바꾸어 언해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2.3 저경에 없는 부분을 추가한 경우

다음은 저경에 없는 부분을 추가한 부분으로 상정되는 부분이다.

- (21) 가. ① 그 뺨 모던 노미 ② 比丘를 주규리라 햏야 ③ 比丘드려 날오디 <권24 15ㄴ6~15ㄴ7>
나. ㉞時彼凶惡人 ㉟語此比丘
- (22) 가. ① 王子 그 새 소리를 듣고져 햏야 햏나홀 어더다가 두니 열흐리로디 우루물 아니 울찌
② 王子 안홀 답쳐햏더니 ③ 햏 각시 아츰미 粉 부르노라 햏야 거우물 보겨늘 <권24 20ㄱ3~20ㄱ7>
나. ㉞王求得此鳥旬日不鳴 ㉟時青衣映鏡嚴莊
- (23) 가. 阿羅漢果를 證햏고 結集햏는 門 밖기 와 들아지라 햏야늘 <권23:2ㄴ6~3ㄴ6>
나. 阿難 … 卽證阿羅漢果。卽來門外白衆求入
- (24) 가. 그 저기 闍耶 | 發願을 햏야 슬보디 <권24 8ㄱ1~8ㄱ2>
나. 時彼童子而發願言

(21가)의 밑줄 친 부분인 ‘② 比丘를 주규리라 햏야’는 대응되는 원문에는 없다. 『석보상절』의 ‘석가의 전기 부분’은 『석가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불전에서 내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 다른 저경에서 가져온 부분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20가)의 경우 추가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② 比丘를 주규리라 햏야’에 선행하는 표현 ‘① 그 뺨 모던 노미’와 후행하는 표현 ‘③ 比丘드려 날오디’는 각각 생략된 부분 없이 ‘㉞ 時彼凶惡人’과 ‘㉟ 語此比丘’와 1대1 대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인 ‘② 比丘를 주규리라 햏야’는 『석보상절』의 편집자가 추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석보상절』의 편찬자가 ‘② 比丘를 주규리라 햏야’와 같은 짧은 구절을 『석보상

절』 본문에 신기 위해서 다른 저경에서 원문을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22가)의 밑줄 친 부분인 ‘㉔ 王이 안홀 답썬허더니’도 저경의 원문에는 없는 부분을 『석보상절』의 편찬자들이 추가한 부분으로 추측된다. (22나)에서 ㉔는 ‘王이 그 새 소리를 듣고져 호야 호나홀 어더다가 두니 열흐리로디 우루물 아니 울썬’로 번역되었고, ㉕는 ‘흔 각시 아츰미 粉 ㅼ르노라 호야 거우를 보거늘’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석가보』의 원문 ㉔와 ㉕는 『석보상절』의 선후행 언해문과 1대1로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22가)의 밑줄 친 부분인 ‘㉔ 王이 안홀 답썬허더니’는 『석보상절』의 편찬자에 의해서 추가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²⁷⁾ (23)의 ‘結集호는’은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 보충된 것이다. 원문에는 아무런 수식어 없이 ‘門’으로만 되어 있지만 나중에 ‘문틈’이라는 중요한 어휘도 나오기 때문에 원문에 없는 ‘結集호는’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24가)의 ‘閻耶’도 『석보상절』의 저경인 『석가보』의 해당 부분에는 없지만 『석가보』의 다른 부분에서 해당 인물이 ‘閻耶’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석보상절』의 편찬자들은 이 부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童子’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여 번역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문처럼 발원의 주체를 ‘彼童子’ 즉 ‘그 아이’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름인 ‘閻耶’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보다 현장감 있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서술 방법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²⁸⁾

4.2.4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표현을 생략하거나 의역한 경우

『석보상절』의 언해문을 구성하면서 저본의 일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생략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원문의 내용이 번거로워 생략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원문의 내용이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5) 가. 阿育이 닐오디 나웃 王 ㄷ외요미 맛당호면 諸天이 와 내 머리에 ㅼ를 ㅼ스리라 하니 즉자히 諸天이 ㅼ를 ㅼ스니라 <권24 12ㄴ6~13ㄱ1>

나. 時阿育心念口言 我應正得王位者 諸天自然來以水灌我頂 ㉔(素繪繫首) 尋聲諸天即以水灌阿育頂 ㉕(素繪繫首)

다. 아육은 마음으로 생각하고는 입으로 말하였다. “내가 왕위를 얻어야 마땅하다면 모든 하늘들이 저절로 내려와서 나의 정수리에 물을 부어 주고 ① 무늬 없는 비단을 목에 걸어 주리라.” 그러자 그 소리에 맞추어서 모든 하늘들은 곧 물을 아육의 정수리에 부어 주었고 ② 무늬 없는 비단을 목에 걸어 주었다. 『한글대장경 석가보』

27) 이러한 추측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저경 작업의 성과에 기댄 것이다. 그러나 저경의 한문 원문과 『석보상절』의 언해문이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찾지 못한 저경이 존재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28) 『석보상절』에서는 저경인 『석가보』를 잘라서 편집하여 번역한 경우도 더러 있다. 예를 들면 『석보상절』 권24의 ‘48ㄱ2~48ㄴ7’의 “그 ㅼ 王과 上座와 比丘들히 ~ 功德 그지업수미 이러호더라”는 모두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三十一’의 부분이지만 “時王上座及比丘僧”으로 시작하는 부분과 “復以三衣并四億萬兩珍寶”로 시작하는 단락을 잘라서 이어붙인 다음 언해한 것이다.

(25가)와 이의 원문인 (25나)를 대비해 보면 (25나)의 ㉞와 ㉟ 부분이 언해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25다)는 (25나)의 한글대장경 번역인데, ㉠은 ‘무늬 없는 비단을 목에 걸어 주리라’로 ㉡는 ‘무늬 없는 비단을 목에 걸어 주었다.’로 번역되어 있다. 여기서 (25나)의 ㉞와 ㉟는 왕이 되는 상징으로 ‘무늬 없는 비단을 목에 거는’ 행위를 표현한 것인데,²⁹⁾ 이러한 문화는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諸天의 인가를 받은 증표로 정수리에 물을 붓는 灌頂 행위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무늬 없는 비단을 목에 거는 행위’는 한국 문화에서는 생소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석보상절』에서 적극적으로 생략되었다.³⁰⁾

(26) 가. 勅書 밍그라 太子의 보내야 두 눈스스를 싸혀 보내라 하고 다른 사르물 갑새 보내니 太子 | 아바닛 勅書 | 신가 너겨 깃스박 혼 눈 싸혀 숄바다에 연자 두고 오래 보니 苦空無我를 아라 須陀洹道를 得히니라 <권24 51ㄱ4-51ㄴ2>
나. 夫人 … 卽矯勅挑其兩眼 令餘人代之 國法以王齒爲印 乃以臘摸王齒而印之 太子奉勅歡 喜無怨 先挑一眼置掌中 看之良久乃悟苦空無我 得須陀洹道

(26가)의 “太子 | 아바닛 勅書 | 신가 너겨”는 원문인 (26나)의 “國法以王齒爲印 乃以臘摸王齒而印之”를 의역한 것인데, 이를 직역하면 “나라의 법에 왕의 이빨을 도장으로 썼으므로 이에 밀랍으로 왕의 이빨을 분떠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 보냈다”이다. 그런데 ‘이빨로 도장을 찍는 문화’는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를 간단하게 ‘태자가 아버님의 칙서로 여겼다’고 의역한 것이다.

5. 結論

이상에서 『석보상절』 권23·24를 중심으로 『석보상절』의 언해문과 저경의 한문 원문의 대응 양상을 유형별로 알아보았다. 앞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존하는 『석보상절』 권3, 6, 11(일부), 23, 24가 해당하는 “석존의 전기”를 기술한 부분은 언해문과 원문이 1대1 대응인 부분과 1대1 대응이 안 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1대1로 대응되는 부분은 다시 한문 원문의 구절들의 위치 변화가 없는 경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저경의 일부분을 생략한 경우, 저경인 『석가보』의 저경을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

29) 고대 인도 문화에서는 왕의 즉위식에서 관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흰 무늬 없는 비단을 목에 거는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데 티베트에서는 ‘흰 무늬 없는 비단을 목에 거는 행위’가 달라이 라마나 판첸 라마의 즉위식에 흔히 사용된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문화의 근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제왕 등의 즉위식에 쓰이는 관정 의식과는 달리 흰 비단을 목에 두르는 문화가 한국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조준호, 공만식 선생님과의 개인적 대화).

30) 이러한 것은 『석보상절』의 저경 원문에 ‘五體投地’가 나올 때 『석보상절』의 언해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셋째, 1대1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은 저경의 한문 원문을 단순히 의역한 경우, 저경의 어순을 바꾼 경우, 저경에 없는 부분을 삽입한 경우,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표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은 ‘석존의 전기’를 기술한 『석보상절』 권23·24의 언해문과 원문의 대응 양상을 살펴본 글이다. 『석보상절』의 이해를 위해서는 한문 원문의 이해가 필수적이고, 원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저경의 이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순애. “월인석보의 저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22(서지학회, 2001가). 63-96.
- 강순애. 『월인석보 연구·영인본 권20』.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1나.
- 강순애. 『월인석보: 장흥 보림사장 초참본 권25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5.
- 고영근. “『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월인석보』.”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1994)에 수록. 1994.
- 김기중. “석보상절의 저경과 저경 수용 양상.” 『서지학연구』 30(서지학회, 2005). 151-182.
- 김기중. 『월인천강지곡의 저경과 문학 성격』. 서울: 보고서, 2010.
- 김기중. 『석보상절』의 저경과 그 성격, 572돌 한글날 『석보상절』 완간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 “『석보상절』 주해본 완간의 의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ABC사업단·국회의원 최재성. 2018.
- 김무봉. 『역주 석보상절 제20』.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2.
- 김무봉. 『훈민정음, 그리고 불경 언해』. 서울: 역락, 2015.
- 김미경. “석보상절 권3의 불경 발췌 연구.” 『한국문화』 81(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323-363.
- 김성주. “『석보상절』 권제3의 저경과 번역.” 『국어사연구』 18(국어사학회, 2014). 219-247.
- 김성주. “『석보상절』 권11과 『월인석보』 권21의 한문과 언해문의 대응 양상.” 『국어사연구』 20(국어사학회, 2015). 193-225.
- 김성주·박서연. 『석보상절 권11』.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 김성주·안양규. 『석보상절 권3』.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 김성주·오지연. 『석보상절 권20』.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 김성주·조진호. 『석보상절 권6』.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 김영배. 『국어사자료연구 - 불전언해 중심 -』.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0.
- 김영배. 『국어사자료연구Ⅱ』.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 김영배·김무봉. “조선 초기의 역경 - 최초의 역경 『석보상절』을 중심으로 -.” 『대각사상』 5(대각사상연구원, 2002). 9-44.

- 김영배·김성주. 『역주 석보상절 권2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2.
- 김영배·김정수. 『역주 석보상절 제13·19』.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 김유범·김진영. 『석보상절 권24』.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9.
- 김지오·김진영. 『석보상절 권19』.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 남권희·남경란. “『월인석보』 권19의 서지 및 『묘법연화경』 언해 권7과 의 본문 대조.” 『국어사자료 연구』 창간호(국어사자료학회, 2000). 193-373.
- 무기 저, 김성옥·박인석 역. 『釋迦如來行跡頌·天台末學雲默和尚警策』.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 민영규. “해제.” 『월인석보 제9·제10』. 서울: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56.
- 민영규. “개제.” 『월인석보 제17·제18』. 서울: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57가.
- 민영규. “개제.” 『월인석보 제7·제8』. 서울: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57나.
- 민영규. “월인석보 제23 잔권.” 『동방학지』 6(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63). 1-18.
- 박해진. 『훈민정음의 길: 혜각존자 신미 평전』. 서울: 나늬, 201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안병희 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 지성사, 1994.
- 僧祐 撰, 송성수 역. 『釋迦譜 外』. 서울: 東國譯經院, 1999.
- 안병희. “석보상절의 교정.” 『국어사 자료 연구』. 서울: 문학과지성사, 1974/1992.
- 안병희. 『국어사 자료 연구』.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2.
- 안병희. 『국어사 문헌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2009.
- 이동림. 『(주해)석보상절』.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59.
- 이병기·이기운. 『석보상절 권23』.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9.
- 이유기·정성준. 『석보상절 권9』.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 이호권.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서울: 태학사, 2001.
- 이화숙. “『석보상절』 권3에 대한 일고찰.” 『국어사연구』 4(국어사학회, 2004). 283-313.
- 정우영. “중기국어 불전언해의 역사성과 언어문화사적 가치.” 『한국어학』 55(한국어학회, 2012). 295-340.
- 정우영·오지연. 『석보상절 권13』.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 천병식. 『석보상절 제3주해』.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 허웅·김석득·김영배. 『역주 석보상절 제6·9·1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 황선엽·최기표. 『석보상절 권21』.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 井上博文. “大般涅槃經後分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53-2(日本印度學佛教學會, 2005). 854-857(148-151).
- 江田俊雄. 『釋譜詳節と月印千江之曲と月印釋譜』. 1936. 江田俊雄. 『朝鮮佛教史 の研究』. 東京:

國書刊行에 수록, 1977. 275-291.

河瀬幸夫. 『朝鮮 世祖 纂述: 釋譜詳節 上·中·下』. 横浜: 春風社, 2010-2013.

CBETA 中華電子佛典協會 사이트: <http://www.cbeta.org/>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Byong Hee. 1974/1992. "A Correction of Seokbosangjeol", in The Korean Linguistic Society in Seoul University ed. 1994
- Ahn, Byong Hee. 1992. *A Study on the Data of Korean Historic Linguistics*. Seoul: Moonji Publishing Co., Ltd.
- Anh, Byeong Hee. 2009. *A Study of the literature of Korean Historic Linguistics*. Seoul: Shingu Publisher.
- Cheon, Byeong Sik. 1985. *A Annotation fo Seokbosangjeol vol. 3*. Seoul: ASIA Publishers.
- Chung, Woo Young & Oh, Ji Yeon. 2018. *Seokbosangjeol vol. 13*. Seoul: Dongguk Unviversity Press.
- Chung, Woo Young. 2012. "The Significance and Linguistico-cultural Value of the Korean Buddhist Texts during the Middle Korean Period." *Korean Linguistics*, 55: 295-340.
- Heo, Woong, Kim, Seok Deuk & Kim, Young Bae. 1991. *A Annotation fo Seokbosangjeol vol. 6, vol. 9 and vol. 11*. Seoul: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 Hwang, Seon Yeop & Choi, Ki Pyo. 2018. *Seokbosangjeol vol. 21*.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 Kang, Soon Ae. 2001a.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scriptures based upon 《Wolinsokpo》."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22: 63-96.
- Kang, Soon Ae. 2001b. *A Study of 《Wolinsokpo》 vol. 20*. Seoul: ASIA Publishers.
- Kang, Soon Ae. 2005. *A Study of the First Version of 《Wolinsokpo》 vol. 25 in Borimsa Temple in Jangheung*. Seoul: ASIA Publishers.
- Kawase, Yukio. 2010-2013. *Seokbosangjeol vol 1, vol 2 and vol 3*. Yokohama: Shumpuji Press.
- Kim, Ji Oh & Kim, Jin Young. 2018. *Seokbosangjeol vol. 19*. Seoul: Dongguk Unviversity Press.
- Kim, Ki Jong. 2005. "A Study on the Based Scriptures of Seokbosangjeol and Pattern of Accepting Based Scriptures."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0: 151-182.
- Kim, Ki Jong. 2010. *A Study on the Based Scriptures of Wolincheongangjigok and Its Literary*. Seoul: Bogosa Publisher.

- Kim, Ki Jong. 2018. "A Study on the Based Scriptures and a characteristics of Seokbosangjeol", Brochure of 572th Hangeul Proclamation Day to celebrate completion of Seokbosangjeol, ABC Buddhist Academy of Dongguk University &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 Choi, Jae Seong.
- Kim, Mi Kyeong. 2018. "Textual Criticism of the Chinese Draft for Seokbosangjeol vol.3." *Korean Culture*, 81: 323-363.
- Kim, Mu Bong. 2012. *A Translaton and Annotation of Seokbosangjeol vol. 20*. Seoul: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 Kim, Mu Bong. 2015. *Hunminjeongeum and Korean Annotation of Buddhist Scripture*. Seoul: Yeokrak.
- Kim, Seong Ju & Ahn, Yang Kyu. 2018. *Seokbosangjeol vol. 3*. Seoul: Dongguk Unviversity Press.
- Kim, Seong Ju & Cho, Jin Ho. 2017. *Seokbosangjeol vol. 6*. Seoul: Dongguk Unviversity Press.
- Kim, Seong Ju & Oh, Ji Yeon. 2018. *Seokbosangjeol vol. 20*. Seoul: Dongguk Unviversity Press.
- Kim, Seong Ju & Park, Seo Yeon. 2018. *Seokbosangjeol vol. 11*. Seoul: Dongguk Unviversity Press.
- Kim, Seong Ju. 2014. "A Study on the Translation and the Based Scriptures of Seokbosangjeol vol. 3."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18: 219-247.
- Kim, Seong Ju. 2015.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between Seokbosangjeol vol. 11 and Wolinseokbo vol. 21."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20: 193-225.
- Kim, Young Bae & Kim, Jeong Su. 1991.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Seokbosangjeol vol. 13 and 19*. Seoul: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 Kim, Young Bae & Kim, Mu Bong. 2002. "A Translation in in the early years of the Chosun Dynasty: with Reference to the First Translation Seokbosangjeol." *Taegak Thought*, 5: 9-44.
- Kim, Young Bae & Kim, Seong Ju. 2012.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Seokbosangjeol vol. 21*. Seoul: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 Kim, Young Bae. 2000. *A Study of Data of Korean Linguistic History: with Reference to Translaton of Buddhist Scriptures*. Seoul: Wolin Publisher.
- Kim, Young Bae. 2013. *A Study of Data of Korean Linguistic History II*. Seoul: Dongguk Unviversity Press.
- Kim, Yu Beom & Lee, Ki Woon. 2019. *Seokbosangjeol vol. 24*. Seoul: Dongguk Unviversity Press.
- Ko, Young Geun. 1994. "Seokbosangjeol, Wolincheonganjigok, Wolinseokpo." in Korean Language

- Socie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d. 1994.
- Lee, Byeong Ki & Lee, Ki Woon. 2019. *Seokbosangjeol vol. 23*. Seoul: Dongguk Universtiy Press.
- Lee, Dong Lim. 1959. *A Annotation of Seokbosangjeol*. Seoul: Dongguk Universtiy Press.
- Lee, Ho Kwon. 2001. *A Bibliography and Language of Seokbosangjeol*. Seoul: Taehaksa Publisher.
- Lee, Hwa Sook. 2004. "A Study on the Seokbosangjeol."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4: 283-313.
- Lee, Yu Ki & Jeong, Seong Jun. 2018. *Seokbosangjeol vol. 9*. Seoul: Dongguk Universtiy Press.
- Min, Young Kyu. 1956. *A Explanation of Wolinseokbo vol. 9 and vol. 10*. Seoul: Institue of Korean Studies in Yonsei University.
- Min, Young Kyu. 1957a. *A Explanation of Wolinseokbo vol. 17 and vol. 18*. Seoul: Institue of Korean Studies in Yonsei University.
- Min, Young Kyu. 1957b. *A Explanation of Wolinseokbo vol. 7 and vol. 8*. Seoul: Institue of Korean Studies in Yonsei University.
- Min, Young Kyu. 1963. "A Explanation of Wolinseokbo vol. 23." *The Dong Bang Hak Ji*, 6: 1-18. Institue of Korean Studies in Yonsei University.
- Nam, Kwon Hee & Nam, Kyeong Ran. 2000. "A Study on the Bibliography of Wolinseokbo vol. 19 and Contrasitive Text with Myobebyeonhwakyeong Sutra." *Study of Korean Linguistic Historic Data*, 1: 193-373.
- Park, Hae Jin. 2015. *The Road to Hunminjeongeum: a Critical Biography of Hyegekjonja Sinmi*. Seoul: Nanok Press.
- The Korean Linguistic Society in Seoul University ed. 1994. *The Data of Korean Linguitic History and the Study of Korean Linguisitcs*. Seoul: Moonji Publishing Co., Ltd.
- Toshio, Maeda. 1936. "Seokbosangjeol, Wolincheonganjigok and Wolinseokbo", in Maeda 1977 *A Study of Joseon Buddhist History*. Tokyo: Kokugankyo Publisher.
- CBETA(Chinese Electronic Tripitaka Association): <http://www.cbeta.org/>